

#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 2014-2015년 간 그룹 내 지역별 출생아 수 변화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섯 개의 사례 지역(그룹 1)은 출생아 수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다섯 개의 사례 지역(그룹 2)은 반대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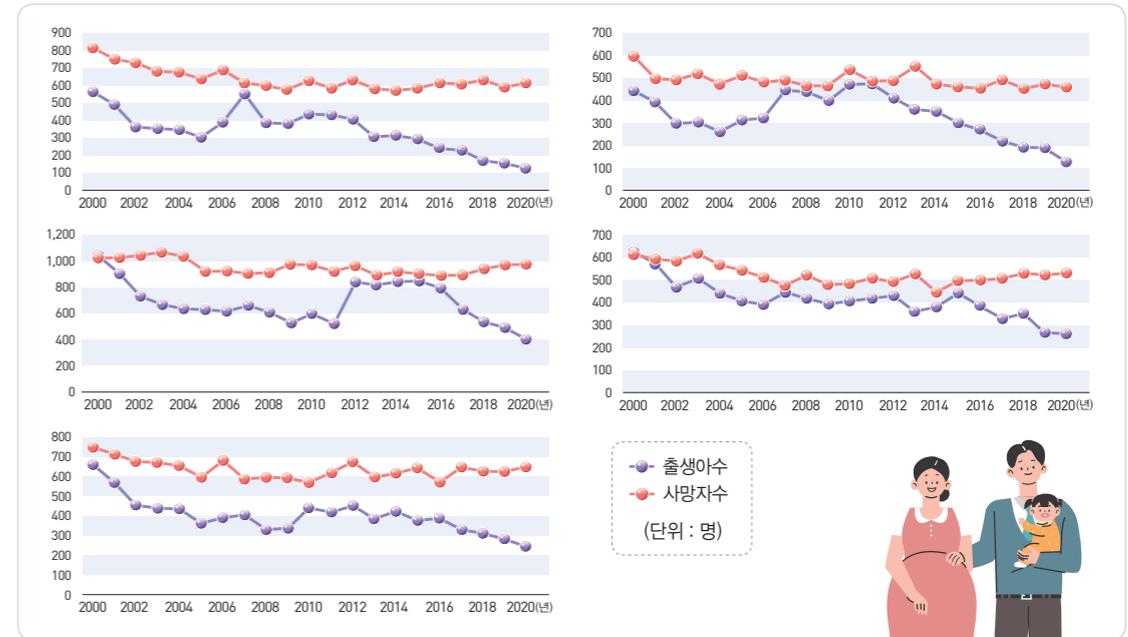
(단위 : 명, %)

■ 2014년 출생아 수 ■ 2015년 출생아 수 ● 2015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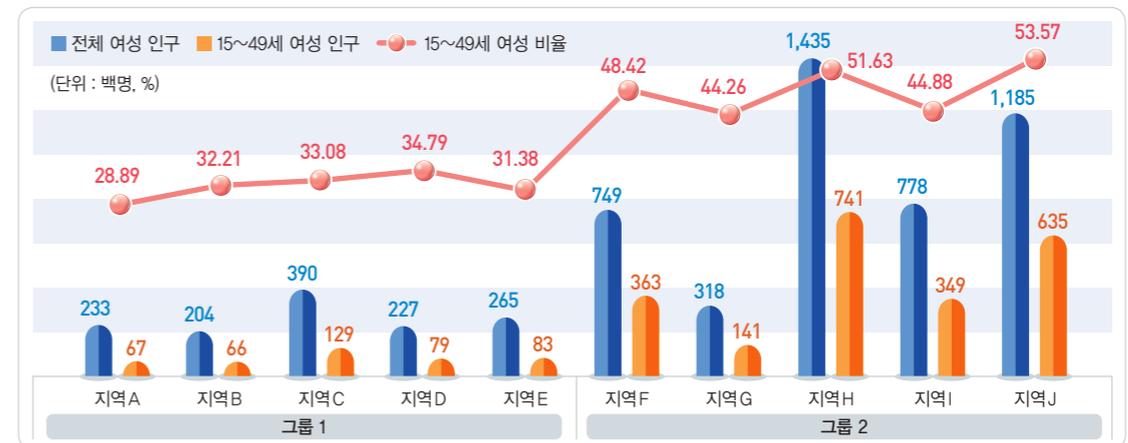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지역의 인구의 자연적 증감 양상

또한,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섯 개의 사례 지역은 2000~2020년 내내 거의 대부분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때문에 이들 사례 지역이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지역별 전체 여성 인구 중 15-49세 여성 인구 수, 비율(2015년)

지역 간 합계출산율 수준이 비슷해도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다르면 출생아 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출생아 수가 동일해도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 / 경제학 박사  
sescis@kihasa.re.kr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높은 합계출산율이 해당 지역 인구 증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관측 그룹)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비교 그룹)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감소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은 비교 그룹에 비하여 관측기간(2000~2019년) 동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는 비교 지역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즉 15~49세 여성 인구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작아서 출생아 수가 같더라도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15~49세 여성 중에서도 고령 여성 비율이 높아서 출생아 수가 적을 수 있다.

이 글은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년 인구 변동 모니터링과 정책 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I. 들어가며

지역 출산력은 국가 단위 출산력의 특징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 전체 인구 규모나 구조,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출산력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 단위의 출산력은 결과적으로 출생아 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역 인구 규모를 유지하거나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본다. 반면 지역 출산력은 지역 단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구 동태, 특히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국가 단위 출산력과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장인수, 2021). 단적으로, 출산력 관측 지표로서 두루 활용되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의 경우 지역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의 특성이 다소 상이한 데, 이는 단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명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두 지표 간 연관성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특정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되는 논의와는 다른 맥락으로서, 지역 단위에서는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인구 감소 지역 중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의 인구 동태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인구의 자연적 증가 및 인구 규모 증가 간 연관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구 단위의 출산력 및 인구 동태 자료를 활용한다.

## II. 인구 규모와 합계출산율 변화에 따른 지역 유형 분류

###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지역이 존재함”

이 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력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인구는 감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높은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자 전체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와 합계출산율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0~2020년 동안 시군구 단위 지역 합계출산율 평균 1.3847(상위 25%)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초과) 또는 하회(미만)하는 지역,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역을 조합하여 살펴본다.

유형을 구분한 결과, 관측기간 내 평균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상위 25% 이내) 인구 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총 36곳이며, 이들 지역은 평균 인구 규모가 약 4만 3,197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평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유형 1). 또한 관측기간 내 평균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상위 25% 이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9곳으로, 이 지역들의 평균 인구는 약 26만 191명이다(유형 3). 관측기간 내 평균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도 감소하는 지역(유형 2)은 총 117곳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많다.

합계출산율과 인구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 1은 인구가 자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 감소하였다(각각 평균 약 2,592명, 1만 321명 감소). 이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인구 규모의 자연적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유형 1 지역의 인구 동태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 변화에 따른 지역 유형 구분과 특성

(단위: 명)

구분	2000-2020년 동안 합계출산율 평균	
	1.3847 초과 지역	1.3847 미만 지역
인구 규모 감소	유형 1) 36개 지역	유형 2) 117개 지역
인구 규모 증가	유형 3) 29개 지역	유형 4) 46개 지역

인구 규모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 1	43,197	24,358	22,159	157,346
유형 2	195,802	173,363	9,185	1,034,766
유형 3	260,191	197,408	20,367	832,227
유형 4	420,431	280,499	61,675	1,181,47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지역 유형별 인구의 평균 자연적/사회적 변화 특성

(단위: 명)

자연적 변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 1	-2,592	5,810	-12,423	27,194
유형 2	11,638	22,844	-14,557	113,521
유형 3	25,062	22,975	-4,366	82,695
유형 4	40,360	36,685	-7,402	156,670

사회적 변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 1	-10,321	9,719	-57,417	-1,105
유형 2	-38,728	35,698	-163,099	3,550
유형 3	76,718	111,288	-3,077	562,227
유형 4	57,419	118,276	-107,808	574,18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Ⅲ. 인구감소/인구증가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지역의 탐색 ●●●●●

#### “합계출산율이 높은 특성은 유사하지만 인구 변화의 특성이 명확하게 다른 특성이 나타남”

앞서 살펴본 합계출산율과 인구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그룹 1, 지역A-E)과 인구 증가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그룹 2, 지역F-J)을 선정하였다.<sup>1)</sup>

1) 이러한 관측그룹(그룹 1)과 비교그룹(그룹 2)은 인구 감소와 합계출산율 특성만을 고려하여 선정했음에도, 그룹 1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 그룹 2는 청년층 비율이 높은 산업 및 혁신도시 지역이 포함되었다. 그룹 1과 그룹 2의 이러한 특성 차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력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구체적인 사례 분석 전에 이미 두 지역의 출산력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표 3] 그룹 비교 분석 지역

(단위: 명)

인구 감소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 (그룹 1) 2015년 기준		인구 증가 지역 중 합계출산율 상위 5개 지역 (그룹 2) 2015년 기준	
지역	합계출산율	지역	합계출산율
지역C	2.464	지역E	1.949
지역D	2.101	지역J	1.911
지역E	1.767	지역F	1.771
지역B	1.755	지역H	1.692
지역A	1.700	지역G	1.62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그룹 간 인구 규모 변화 특성(2000~2020년)

(단위: 명, %)

그룹 구분	지역	인구 규모 변화	자연적 증감(A)	사회적 증감(B)	A기여	B기여
그룹 1	지역A	-21,645	-6,138	-15,507	28.36	71.64
	지역B	-15,584	-3,329	-12,255	21.36	78.64
	지역C	-31,012	-5,733	-25,279	18.49	81.51
	지역D	-11,510	-2,309	-9,201	20.06	79.94
	지역E	-17,899	-4,895	-13,004	27.35	72.65
그룹 2	지역F	94,573	8,562	86,011	9.05	90.95
	지역G	22,408	2,581	19,827	11.52	88.48
	지역H	130,845	34,004	96,841	25.99	74.01
	지역I	42,210	8,163	34,047	19.34	80.66
	지역J	71,639	38,383	33,256	53.58	46.42

주: 자연적 증감은 "출생아 수-사망자 수", 사회적 증감은 "전입자 수-전출자 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룹 1은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고, 관측기간(2000~2020년) 동안 자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 인구 감소에는 자연적 원인보다 사회적 원인이 더 많이 기여하였다. 사회적 증감의 높은 기여도는 그룹 2와 동일한 특징으로 이해되지만, 그룹 2는 인구 규모가 관측기간 동안 모두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룹 1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표 5] 그룹 간 기간별(1기간: 2000~2009년, 2기간: 2010~2020년) 인구 규모 변화 특성

(단위: 명, %)

구분	지역	1기간 인구 규모 변화	2기간 인구 규모 변화	1기간 자연적 증감 기여	2기간 자연적 증감 기여	1기간 사회적 증감 기여	2기간 사회적 증감 기여
그룹 1	지역A	-12,662	-8,120	20.73	43.27	79.27	56.73
	지역B	-9,072	-6,585	15.13	29.71	84.87	70.29
	지역C	-18,915	-11,062	14.83	26.47	85.17	73.53
	지역D	-9,816	-1,402	8.38	106.03	91.62	-6.03
	지역E	-13,256	-4,098	15.99	67.72	84.01	32.28
그룹 2	지역F	11,047	73,261	12.57	9.79	87.43	90.21
	지역G	1,536	20,395	117.84	3.78	-17.84	96.22
	지역H	66,291	53,399	21.80	36.62	78.20	63.38
	지역I	14,075	24,275	19.74	22.18	80.26	77.82
	지역J	47,331	19,439	38.75	103.09	61.25	-3.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V. 합계출산율이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출생아 수, 사망자 수 특성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출생아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

인구 감소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해당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를 위해 해당 지역(그룹 1) 인구의 출생아 수와 인구의 자연적 변화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본다.

이들 지역 중 인구는 감소하지만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지역(그룹 1) 인구는 관측기간 동안 사회적 인구 감소를 보였고, 인구가 증가하고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지역(그룹 2)과는 자연적 증감/사회적 증감 측면에서 모두 상반된 특징이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기준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인구 감소 지역(대체로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높음)은 관측기간(2000~2019년) 동안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당해연도 15~49세 여성 인구가 평생 낳는 평균 출산아 수’가 합계출산율임을 상기하면, 이들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유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출생아 수의 변화도 그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그룹 1은 2014년에 비하여 2015년 출생아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그룹 2는 대체로 증가하였다.

[표 6] 2014~2015년 간 그룹 내 지역별 출생아 수 변화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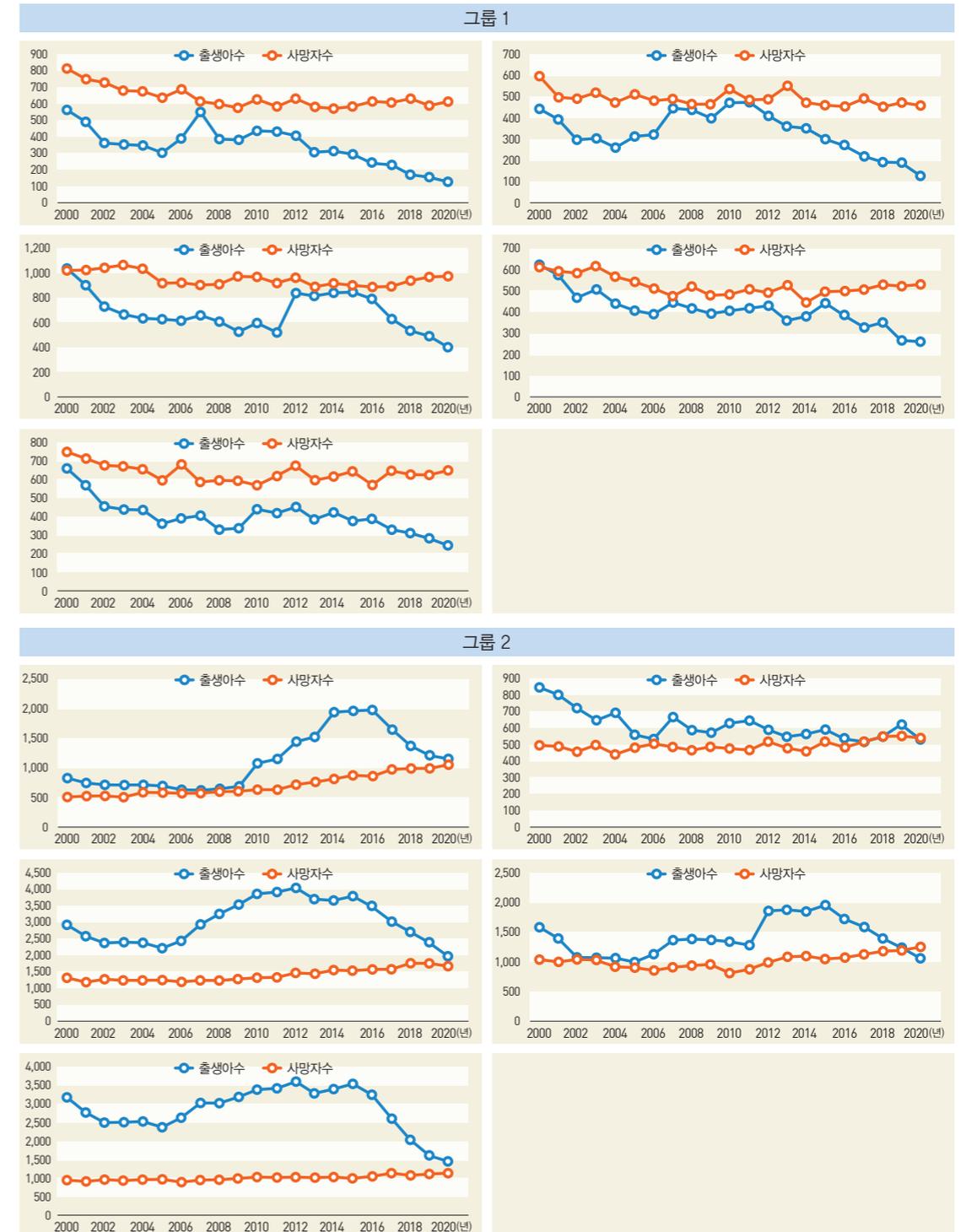
구분	지역	2014년 출생아 수	2015년 출생아 수	변화분(Δ)
그룹 1	지역A	314	295	-19
	지역B	349	301	-48
	지역C	835	839	4
	지역D	378	440	62
	지역E	421	379	-42
그룹 2	지역F	1,924	1,963	39
	지역G	561	590	29
	지역H	3,621	3,760	139
	지역I	1,848	1,945	97
	지역J	3,389	3,533	14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룹 1은 관측기간 동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사망자 수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지역만 특별히 사고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인구 고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2015~2020년 기간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 연령보다 5세가 많고, 65세 이상과 8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 및 그룹 2에 비하여 점점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그룹 1, 2 지역별 인구의 자연적 증감 양상(2000~2020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그룹/지역별 인구의 평균 연령(201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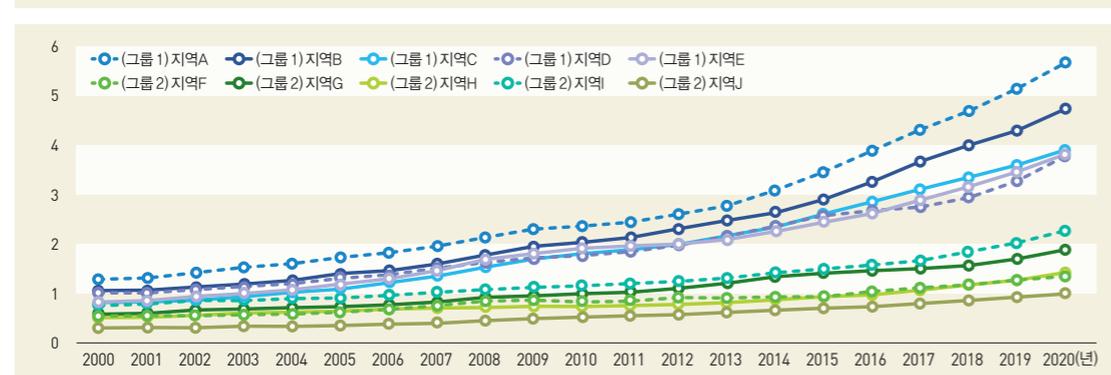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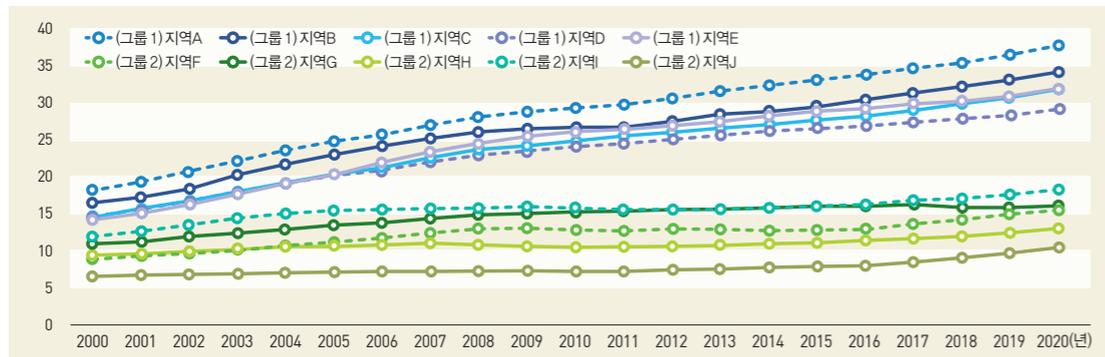
(단위: 세)

그룹 구분	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룹 1	지역A	51.7	52.1	52.9	53.4	54.3	55.1
	지역B	49.5	50.1	50.9	51.5	52.1	52.6
	지역C	48.7	49.0	49.8	50.3	51.0	51.4
	지역D	47.6	47.7	48.2	48.7	49.1	49.9
	지역E	49.2	49.4	49.8	50.1	50.3	50.7
그룹 2	지역F	38.9	39.2	39.8	40.4	41.0	41.4
	지역G	41.8	41.9	41.8	41.7	41.8	42.2
	지역H	36.9	37.3	37.7	38.2	38.7	39.6
	지역I	40.9	41.2	41.6	42.1	42.7	43.4
	지역J	36.3	36.7	37.5	38.2	38.9	39.7
전국 평균		40.4	40.8	41.3	41.8	42.4	42.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그룹/지역별 65세 이상(위)/85세 이상(아래) 인구비율(2000~2020년)

(단위: %)



주: 파란색 계열은 그룹 1을, 초록색 계열은 그룹 2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V. 인구가 감소하는 분석대상 지역(사례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관관계 특성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관측기간 동안 그룹 1과 그룹 2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룹 2가 대체로 정적(+) 상관관계가 높고(0.7~0.9), 그룹 1은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난다. 그룹 1의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0.1~0.4로 다소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참고하자면, 국가 단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1970~2019년)는 0.7494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그림 3 참조).

[표 8] 그룹 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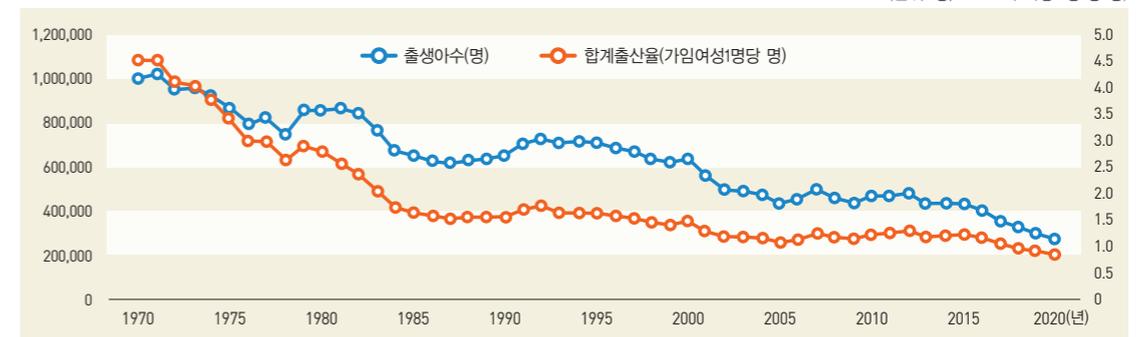
(단위: 15~49세 여성 1명당 명, 명)

그룹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관관계	지역A	0.7644
	지역B	0.8104
	지역C	0.4777
	지역D	0.1133
	지역E	0.4655
그룹 2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관관계	지역F	0.8607
	지역G	0.7635
	지역H	0.8075
	지역I	0.9551
	지역J	0.951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세

(단위: 명, 15~49세 여성 1명 당 명)



자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VI. 인구가 감소하는 분석대상 지역(사례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구조 특성

**“15~49세 여성의 분포 특성에 따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룹 1의 사례 지역에서 관찰된 낮은 상관관계는 높은 합계출산율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간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합계출산율이 실제 출산율에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15~49세 여성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 여성 인구 대비 15~49세 여성 인구 비율은 대체로 그룹 1이 28~35%, 그룹 2가 44~54%이다. 2000년(관측 시작 연도) 여성 인구 대비 15~49세 여성 순이동 인구의 지역별 비율 특성은 그룹 1과 그룹 2가 상반된다. 그룹 1은 모두 2000~2020년 15~49세 여성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고, 이러한 순전출 인구는 2000년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의 15~20% 수준이다. 반면 그룹 2는 2000~2020년 15~49세 여성 인구가 모두 순전입 양상을 보이며, 그 비율은 8~65%이다.<sup>2)</sup> 지역 간 출생아 수가 동일해도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다른 경우 합계출산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하면, 합계출산율 수준이 유사할 때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상이하면 출생아 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해당 사례에 적용하면, 그룹 1은 15~49세 여성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출생아 수가 동일해도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 2000년 지역별 여성 인구 대비 15~49세 여성 순이동 인구 비율의 그룹 간 차이는 인구 이동의 사유가 그룹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점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즉 그룹 1은 대체로 일반적인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순유출에 의한 것인 반면 그룹 2는 해당 그룹 내에 포함된 일부 지역의 특성을 상기할 때,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입지'와 같은 특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2000년 지역별 여성인구 대비 15~49세 여성 순이동 인구(2000~2020년) 규모 및 비율 (단위: 명, %)

그룹 구분	지역	2000~2020년 15~49세 여성 순이동 인구(A)	2000년 여성 주민등록연앙인구(B)	(A/B)×100
그룹 1	지역A	-6,398	31,724.5	-20.17
	지역B	-5,250	25,838.0	-20.32
	지역C	-10,104	51,042.5	-19.80
	지역D	-4,339	27,965.0	-15.52
	지역E	-5,950	33,966.5	-17.52
그룹 2	지역F	24,084	37,447.0	64.31
	지역G	4,359	29,262.0	14.90
	지역H	27,839	90,081.0	30.90
	지역I	5,082	61,371.5	8.28
	지역J	9,330	84,838.0	1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0] 지역별 전체 여성 인구 중 15~49세 여성 인구 규모 및 비율(2015년)

(단위: 명, %)

그룹 구분	지역	전체 여성 인구(A)	15~49세 여성 인구(B)	(B/A)×100
그룹 1	지역A	23,298.0	6,731.5	28.89
	지역B	20,371.0	6,562.5	32.21
	지역C	39,029.5	12,910.0	33.08
	지역D	22,694.5	7,895.0	34.79
	지역E	26,488.0	8,311.0	31.38
그룹 2	지역F	74,894.5	36,262.5	48.42
	지역G	31,798.5	14,073.5	44.26
	지역H	143,461.0	74,076.0	51.63
	지역I	77,842.5	34,933.0	44.88
	지역J	118,500.0	63,486.0	53.5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15~49세 연령대에서 출산 확률이 높은 여성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실제 출산율과 유사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여성 대비 15~49세 연령 비율을 5세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룹 1의 경우 45~49세, 40~44세, 35~39세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그룹 2의 경우는 35~39세, 30~34세, 40~44세, 45~49세의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룹 1은 그룹 2보다 연령대가 높은 범주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평균 출생아 수가 적고,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그룹 2의 경우에는 그룹 1보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주의 여성 비율이 높아서 합계출산율이 높으면 출생아 수가 많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그룹, 지역별 전체 여성 인구 대비 5세 단위 15~49세 여성인구의 비율(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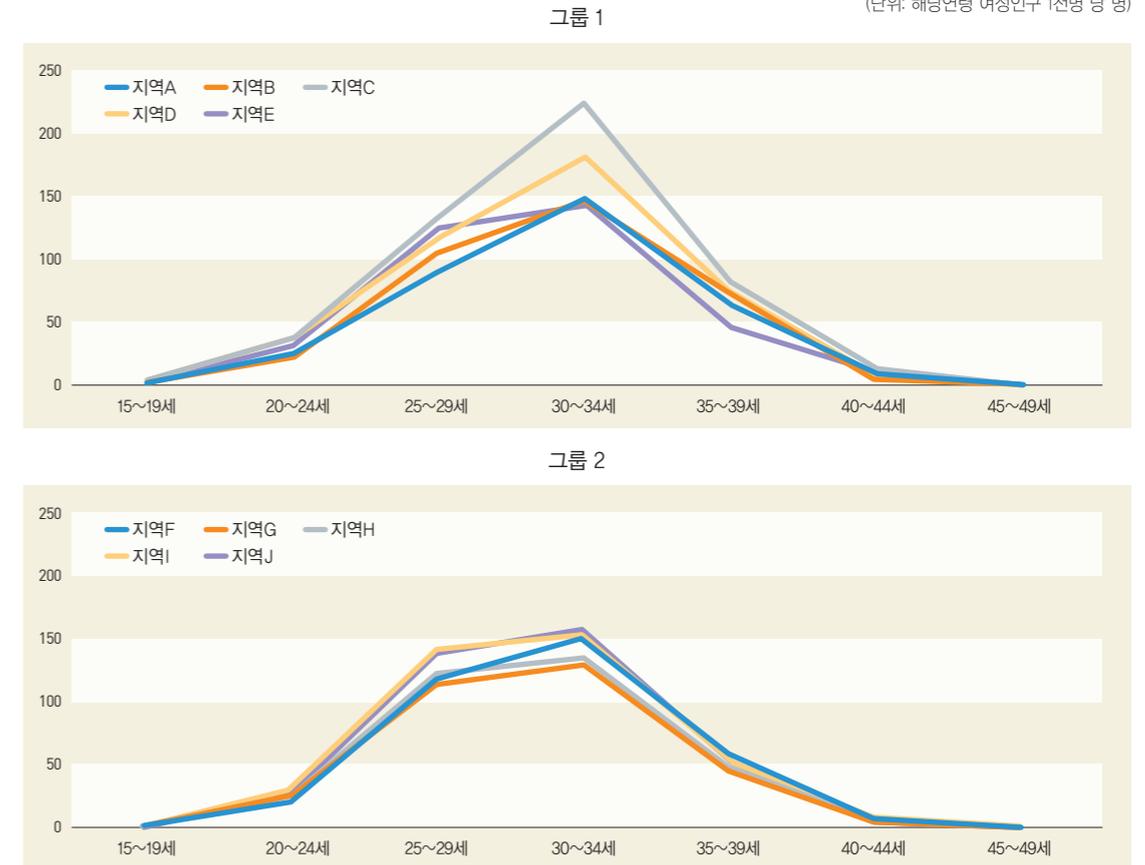
주: 각 그룹 내 지역은 좌측부터 A-E, F-J 지역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를 토대로 15~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룹 1과 그룹 2 모두 대체로 30~34세, 25~29세, 35~39세의 순으로 연령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 출산율이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임을 상기할 때, 여성 연령 20대

중후반, 30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다른 특성이 유사할 경우 실제 출생아 수가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

[그림 5] 그룹, 지역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분포(2015년)

(단위: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 당 명)



자료: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Ⅶ. 나가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룹 1과 그룹 2에서 합계출산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생아 수, 인구 고령화 정도, 15~49세 여성 인구 비율의 차이에 따른 인구 규모의 자연적/사회적 증감률, 인구 규모에 기여하는 정도 등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토대로 일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실질적인 인구의 자연적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15~49세 여성 인구 규모가 작아서 유사한 규모의 출생아 수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15~49세 여성 중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 글은 일부 인구 감소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 현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합계출산율 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구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 동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합계출산율 외에 다른 지표나 미시적 분석을 추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 참고문헌

- 장인수. (2021).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보건복지 Issue & Focus, No. 405. (2021.7.1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